

ISSN 1229-8565 (print) ISSN 2287-5190 (on-line)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1) : 155~166, 2015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6(1) : 155~166, 2015

<http://dx.doi.org/10.7856/kjcls.2015.26.1.155>

중학생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김미원·박옥임^{1)†}·김진희²⁾·박준섭³⁾

광양경찰서·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¹⁾·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²⁾·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³⁾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after Preventive Education

Kim, Mi Won · Park, Ok Im^{1)†} · Kim, Jin Hee²⁾ · Park, Joon Sup³⁾

Dept. of Woman & Youth, Gwangyang Police Station Gwangyang, Korea

Division of Social Welfar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¹⁾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²⁾

Dept. of Social Welfare, Chodang University Muangun Jeollanamdo, Korea³⁾

ABSTRACT

This thesis attempt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effective preventative educ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regarding school violence after identifying the level of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as well as analyzing perception of preventive education among students. The study compiled data on 474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iddle schools in Jeollanamdo.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students were aware of the necessity for preventive education regarding school violence. By gender, girls and those of lower grades showed great class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Second, research on the preventive education found differences in the seriousness of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school location. Fourth, preventive education conducted once or twice a month was the most desirable condi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As a result, schools should consider gender differences and grade level when, developing an education program in order to prevent school violence.

Key words: middle school,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 서론

학교폭력의 이슈는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서만 나타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며, 세계적인 이슈이다. 이에 학교가 학교폭력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다양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Polischewski & Tveitereid 2008; Kim et al. 2013).

우리나라보다 학교폭력이 먼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심각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서구에서는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20여 년 전부터 학교폭력

접수일: 2015년 2월 6일 심사일: 2015년 2월 11일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25일

†Corresponding Author: Park, Ok Im Tel: 82-61-750-3670

e-mail: parkok@sunchon.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는데, 이는 학교폭력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되도록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처방안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한 최초의 법적 근거를 교육법(The Education Act 1996)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010년 미국 교육부(The U.S. Education Department, DOE)는 각 학교가 학교폭력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환경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 보호에 실패한 것이며, 이는 인권법(the Civil Rights Act 1964)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한바가 있다(Kim et al. 2013). 이에 비해 우리나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포함한 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되었으나, 이에 관한 예방차원의 교육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Korea Youth Counseling 2008).

우리나라 정부는 학교폭력의 법적·제도적 대응책으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시행하였다. 그동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학교폭력 정책은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부족하고 안전한 학교풍토 증진보다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후 대처와 처벌 및 훈육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지속적 실시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음이 사실이다(Kim et al. 2013).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전체 응답자의 8.5%, 가해응답 학생도 전체 응답자의 4.1%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식적인 전수조사는 학교폭력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연속적으로 조사한 자료라 할지라도 설문문항 및 자료조사 방법의 차이로 인해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여 변화 추이를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실에서 체감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통계의 착시현상이거나 조사의 한

계를 드러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Lee 2013). 특히, 학교폭력의 개념이 실태를 분석하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시 응답자들의 답변이 학교폭력 가해나 피해경험을 때론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Jeong 2012).

청소년기는 인간발달 단계 중에서 신체적 성장 뿐 아니라 사회적·정서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성장 변화로 인해 불안, 초조, 긴장, 정체감 혼미 등의 다양한 정서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인 점과 국가적으로 장래를 책임질 주인공인 청소년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국가 장래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볼 때에 청소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학교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Youth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2011).

2007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율과 가해율을 비교해 보면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4.4%의 학생들이 ‘집단따돌림’을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신체 폭행’의 경우 23.3%의 학생들이 심각하다고 확인되었다. 학생들이 인지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학교폭력이 행해지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폭력대상에 대해 어떤 특별한 분노나 원한도 없으면서, 단지 ‘장난으로 또는 이유없이’ 저지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Youth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2013). 이는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집단화되는 경향과 맞물려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게는 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감각하고 일상화되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 경험은 없지만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은 폭력의 방관자로서 이차적 심리문제가 발생되고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심각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순환구조 뿐 아니라 이를 목격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응이 요청된다.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누구도 안전하지 못한 교육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파악과 더불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의 경향

학교폭력이란 일반적으로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하는 의도성을 가진 신체적, 정서적, 성적 가해 행동을 말한다. 고의적 괴롭힘이나 따돌림, 금품갈취, 언어적 놀림이나 협박과 욕설, 신체적 폭행이나 집단적 폭행 등이 그 범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찮은 놀림이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심리적 또는 행동적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 역시 폭력행위로 보고 있다 (Lee 2008).

학교폭력을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들 사이에 신체적 폭행, 금품갈취 등 신체적·재산적 피해와 따돌림, 괴롭힘,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 그리고 인터넷에서 욕이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이버 머니, 게임 아이템을 뺏는 행동, 그리고 같은 성별이나 다른 성별 간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동, 추행과 같은 성적인 폭력 등의 피해’라고 하였다(Youth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2011).

학교폭력은 피해청소년의 상당수가 보복 심리에 의해 가해 청소년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폭력이 종전의 단순한 폭력과 금품갈취와 같은 차원을 넘어 조폭화·집단화·저연령화·조직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은 일부 비행청소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청소년과 여학생 사이에도 빠르게 번지고 그 과정에서 범죄의 심각성과 잔인함이 더해지고 폭력행위에 대한 죄의식도 점차 약화 되었다. 또한 폭력에서의 일인자를 우상시하는 기현상까지 연출되며, 각 학교마다 일진회라는 조직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Pyo 2010).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고 하여 학생 간의 폭력행위도 한정 지었다 (Kim 2010).

이상의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상을 고려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학교란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 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과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만을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한다.

2. 중학생의 학교폭력 실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차원의 연구뿐만 아니라 정부출연기관이나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실태조사가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기관의 대표적인 예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있으며, 사회단체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이 있다. 2012년 1학기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대로 교육감의 협조를 얻어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

하여 1년에 2번씩 실태조사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많을 뿐 아니라, 매년 연속적으로 조사한 자료라 할지라도 설문문항 및 자료조사 방법의 차이로 인해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여 변화 추이를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개념이 실태를 분석하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시 응답자들의 답변이 학교폭력 가해나 피해경험을 때론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발생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피해율과 가해율의 경우 2002년부터 2005년의 경우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학교폭력 추세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Jeong 20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2008년에 8,813건에서 2009년에는 5,605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 다시 7,823건으로 증가한 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2012년 2월 6일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2012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 동안의 심의 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해의 12개월 동안 일어난 심의 건수에 유사하다. 2011년은 전국 월평균 620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던 반면, 2012년에는 월평균 1,132건으로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5년 동안 일관적으로 중학교가 가장 높은 비율(60~70%)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2012년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에 대한 조사에서 12.0%의 학교피해율, 12.6%의 학교폭력 가해율을 확인하였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해 볼 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학교폭력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감각하고 일상화되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목격 학생 역시 방관하거나 학교폭력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성은 가중되고 있다.

경찰청의 학교폭력 검거현황자료를 보면, 2011

년에는 21,957명에서 2012년에는 23,877명으로 전년보다 8.7%(1,920명)가 증가하였으나, 2013년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업무와 더불어 경찰·학교·지역사회 등이 협조체제를 구축 공동으로 대응한 결과 학교폭력의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국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항 및 시행령 제 11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교육 횟수, 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며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15조의 제2항에 따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및 자료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목적을 둔다.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개입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서비스 지원을 해주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위기지원센터 분쟁조정 서비스와 전화상담 및 중재사례회의를 실시한다(Un 2013).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범죄예방교실’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강의를 활성화하여 경찰관(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 여성청소년계 전담강사 등이 각 급 학교를 방문하여 범죄예방요령 피해 시 조치요령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에는 중·고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집중하여 실시하였다. ‘사랑의 교실’은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와 역할극·미술치료·봉사활동 등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 총 33개의 전

문교육단체를 선정하였다. '09년 대비 전체 교육 실시 인원 261.5%(6,837명→17,877명)가 증가하였다(Police office 2011).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46조의 2호에 관한 규정이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 상담·보호·교육·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2005년 4월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지역 중심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위기청소년 79,933명에게 434,281회 상담 및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의 유형인 인터넷상의 사이버폭력 및 허위사실유포 등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예방·홍보 중이며,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Un 2013).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대부분은 초·중·고등학교의 대분류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사회성 기술훈련, 분노조절훈련,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학교를 기반으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장 재량에 의해 특별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시도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가해자를 위한 예방교육, 피해자를 위한 예방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다(Un 2013).

학교폭력의 일반적 예방을 위한 교육은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적인 특성이나 능력, 또는 태도 측면에서 교육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일반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대부분 1~2회기의 학기별 일회성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교육 및 대처는 안일하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을 살펴서 상황에 적절한 예방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시우보우', '무지개

프로그램', '내가 바로 지킴이', '헬핑 프로그램', '작은 힘으로 시작하자'와 같다. 서울대학교 발달심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시우보우'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흥미와 주의집중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영상효과를 극대화하였다(Park et al. 2007). 또한 헬핑 프로그램의 매뉴얼은 교사가 스스로 학습하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무지개 프로그램'과 '작은 힘으로 시작해 봐'는 프로그램 모형 개발의 성격이 강해서 학교 현장이나 청소년시설에서 직접 활용하는 데 제한적이다. 또한 학생의 흥미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나 활동이 부족하다. '내가 바로 지킴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과 대처방법에 치중되어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성격이 약하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외부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 활용상의 제한점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Un 2013). 첫째, 대부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교실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학교수업과 비슷한 형식을 취하면서 활동보다는 동영상 시청과 같이 편리한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로 퀴즈나 게임 형식을 빌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지식이나 정보전달 위주 예방교육 보다는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 전문가가 미비한 실정이다. 학생들에게 확실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학교폭력 전문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재, 중학생에게 쉽게 접근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회기를 줄여서 별도의 훈련 없이 최소의 노력으로 교육할 교육자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Un 2013).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발표 자료(Ministry of education

2013)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학교·지역사회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 지원하기 위해 체험중심의 학교급별 ‘어울림’ 프로그램(학생용)을 개발 2017년까지 모든 학교에 적용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과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9월부터 300개교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생들이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해결자로 성장하여 학교폭력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도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 뮤지컬 등 학생 눈높이에서 ‘역지사지’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또래조정, 또래상담, 자치법정 외에 또래보호, 마음 나누기, 동아리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과 명상·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학교 자원의 다양한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학교(가칭 ‘꿈키움 학교’)를 13년 2학기에는 1,000개교를 선정·지원하고, 14년에는 3,000개교 이상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다양한 예방활동을 학교정보공시와 교육청 평가 항목에 2014년부터 반영하였다.

Cho(2008)는 한국청소년 폭력집단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연구에서 중학생은 일진이 만들어지는 단계로 다음 단계인 고등학교에서까지 이어지면 성인폭력조직과 연계되는 사례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진에 가담하거나 초등학교 때 폭력을 경험하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그 친구 관계가 선배와 친분이 작용하는 등 자발적으로 일진으로 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면에 일진에 감당하기 싫지만 선배의 강요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Lee(2008)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이 흉포화, 조직화, 집단화 경향이 있으며,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과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특성을 고찰하였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효과적인 해결을 위

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 또는 기성사회의 따뜻한 이해와 꾸준한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시사했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공통으로 예방프로그램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서요법을 통한 학교폭력 행동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Bang(2005)은 폭력 가해 경험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요법을 실시한 결과 폭력성향이 낮아지는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Seo(2007)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 그리고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또래들 간의 괴롭힘 정도가 많이 감소된 점을 확인하였고, Kim(2002)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는 교육 후 학교폭력 인지의 변화와 폭력 원인인 사회적, 심리적 학교환경의 변화에 효과가 있었고, 피해 학생에게서 집단따돌림과 또래 괴롭힘 등의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거나 괴롭히려는 성향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Lee(2000)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행 후 추적조사에서 예방교육 실시 1년 후,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왕따 피해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Jang(2005)은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 후 학교폭력에 대해 덜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공격성에 대한 신념과 함께 교육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가지게 되는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Park(2010)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단기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태도변화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학생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예방교육의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폭력태도,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Yang(2009)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중

학생의 학교폭력태도와 분노 그리고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Seo(2007)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변화 그리고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10회에 걸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서 또래들 간의 괴롭힘 정도가 많이 감소한 점을 확인했고, 친구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과 친구들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참여 동기가 프로그램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Jeong(2011)는 학교폭력인식과 태도의 점수를 알아본 결과 여학생이며 학년이 어릴수록 학교폭력인식과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과 대화가 많고 서로에게 관심도가 높을수록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Un(2013)은 중학생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에서 학교폭력교육의 필요성, 효과성, 참여도, 만족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고, 1학년 학생들이 2·3학년들보다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은 일관되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더 높게 지각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소재한 6개 중학교 학생 500명(남학생 250명, 여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각 학교의 교사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뒤 담임교사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생들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2014년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이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474부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50.6%, 여학생 49.4%이었다. 1학년은 32.5%, 2학년 33.5%, 3학년 34.0%이었으며, 학업성적은 55.7% 학생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상위권은 25.5%, 하위권은 34.0%이었다. 친한 친구 수는 5-6명이라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고 3-4명 39.0%, 1-2명 19.0%이었다.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94.9%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모님과 걱정 나누기에 대해서도 대다수인 88.2%의 학생들이 부모님과 걱정을 나누는 편이라고 하였다. 부모님의 직업은 맞벌이가 61.4%로 가장 많았고 두 분 중 한 분만 직업이 있는 경우가 32.5%, 두 분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가 6.1%이었다. 가정경제수준은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6.4%, 16.5%는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7.2%의 경우에는 하위권이라고 하였다.

2. 연구도구

1)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또래폭력에 대한 척도(Rigby & Slee 1993)를 Cho(2001)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또래폭력에 대한 7문항과 피해 학생에 대한 인식 5문항의 총 12 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심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724$ 와 $.737$ 로 나타났다.

2)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은 Oh(2007), Kang(2007)의 연구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Kim(201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 만족도와 참여도 등 7문항,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태의 문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주도적인 집단, 대상 및 프로그램에 대한 7문항,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방법은 교육방법, 실시방법, 중요한 내용 등 8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708\sim.813$ 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활용한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중학생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대상자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Table 1과 같다.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중학생은 26.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 성별, 학년에 따른 중학생이 인지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교 소재지($X^2=39.735, p<0.001$)와 학년($X^2=23.270,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 소재지의 경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한 곳은 '면 지역'에 소재한 중학

교였다. 일반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지역은 '면'지역이 36.8%로 가장 많았고 '읍'지역 23.5%, '면'지역은 21.97%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학교폭력의 인지수준을 보면 '1학년'은 76.3%가 대체로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3학년' 65.2%, '2학년' 55.1%이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은 학년이 낮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에 대해 만성화되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1학년 중학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2.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만족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2와 같다. '약간 만족한다' 56.1%, '매우 만족한다' 31.2%로 97.3%의 학생들이 교육에 대하여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학교소재지($X^2=18.412, p<0.01$)와 성별($X^2=12.869, p<0.01$), 학년($X^2=15.812,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 소재지의 경우, '읍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생의 경우 만족도가 91.6%이었고, '면 지역' 88.1%, '동 지역' 82.6%이었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의 만족도는 90.6%이었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84.1%이었다. 학년에 있어서는 2학년의 만족도가 89.3%로 가장 높았고 1학년 88.3%, 3학년 84.5% 순이었다.

Table 1. School subjects are perceived seriousness of violence

| | | very serious | some serious | rarely serious | not serious at al | Total | X^2 |
|-----------------|------------|--------------|--------------|----------------|-------------------|------------|-----------|
| school premises | Myeon area | 43(36.8) | 28(23.9) | 17(14.5) | 29(24.8) | 117(100.0) | 39.735*** |
| | Euo area | 42(23.5) | 68(38.0) | 56(31.3) | 13(7.3) | 179(100.0) | |
| | domg area | 39(21.9) | 77(43.3) | 42(23.6) | 20(11.2) | 178(100.0) | |
| gender | Male | 64(26.7) | 173(36.5) | 59(24.6) | 39(16.3) | 240(100.0) | 5.932 |
| | Female | 60(25.6) | 78(32.5) | 56(23.9) | 23(9.8) | 234(100.0) | |
| grade | 1 | 55(35.7) | 95(40.6) | 28(18.2) | 20(13.0) | 154(100.0) | 23.270*** |
| | 2 | 35(22.0) | 51(33.1) | 55(34.6) | 18(11.3) | 159(100.0) | |
| | 3 | 34(21.1) | 71(44.1) | 32(19.9) | 24(14.9) | 161(100.0) | |
| total | | 124(26.2) | 173(36.5) | 115(24.3) | 62(13.1) | 474(100.0) | |

*** P<0.001

Table 2. Satisfaction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 | | very satisfied | some satisfied | Rarely satisfied | Not satisfied at all | total | X^2 |
|-----------------|------------|----------------|----------------|------------------|----------------------|------------|--------------------|
| school premises | Myeon area | 45(38.5) | 58(49.6) | 6(5.1) | 8(6.8) | 117(100.0) | 18.412 (.005)** |
| | Euo area | 53(29.6) | 111(62.0) | 14(7.8) | 1(0.6) | 179(100.0) | |
| | domg area | 50(28.1) | 97(54.5) | 23(12.9) | 8(4.5) | 178(100.0) | |
| gender | Male | 80(33.3) | 122(50.8) | 23(9.6) | 15(6.3) | 240(100.0) | 12.869 (.005)** |
| | Female | 68(29.1) | 144(61.5) | 20(8.5) | 2(0.9) | 234(100.0) | |
| grade | 1 | 63(40.9) | 73(47.4) | 13(8.4) | 5(3.2) | 154(100.0) | 15.812 (.015)* |
| | 2 | 44(27.7) | 98(61.6) | 15(9.4) | 2(1.3) | 159(100.0) | |
| | 3 | 41(25.5) | 95(59.0) | 15(9.3) | 10(6.2) | 161(100.0) | |
| total | | 148(31.2) | 266(56.1) | 43(9.1) | 17(3.6) | 474(100.0) | |

* p<0.05 ** p<0.01 *** p<0.001

3.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요구도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요구도는 Table 3과 같다. 실시 횟수는 ‘월 1-2회’가 40.7%로 가장 많았고 ‘학기당 1회’는 34.4% ‘1년에 1회’ 16.7% ‘주1회’는 8.2%이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성별($X^2=9.681$,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주 1회’ 11.3% ‘월 1-2회’ 42.5%로 여학생의 5.1%와 38.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은 Table 4와 같다. ‘학교’ 56.1%, ‘경찰서’ 19.2%, ‘지역사회 청소년전문 상담기관’ 13.3%, ‘교육청 Wee 센터’ 11.4% 순이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학교 소재지($X^2=15.910$, $p<0.05$)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소재지의 경우, ‘동 지역’과 ‘읍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59.0%와 58.7%로 ‘면 지역’ 학생들의 47.9% 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 지역’과 ‘면 지역’은 그 다음 순으로 경찰서에서 실시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으며 ‘읍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청 Wee센터에서 실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ee(2008)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은 학교라고 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지도의 학교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School violence prevention training times

| | | Once a week | 1-2 times a month | Once a semester | Once a year | total | X^2 |
|-----------------|------------|-------------|-------------------|-----------------|-------------|------------|------------------|
| school premises | Myeon area | 14(12.0) | 45(38.5) | 38(32.5) | 20(17.1) | 117(100.0) | 5.108 (.530) |
| | Euo area | 10(5.6) | 71(39.7) | 68(38.0) | 30(16.8) | 179(100.0) | |
| | domg area | 15(8.4) | 77(43.3) | 57(32.0) | 29(16.3) | 178(100.0) | |
| gender | Male | 27(11.3) | 102(42.5) | 70(29.2) | 41(17.1) | 240(100.0) | 9.681 (.021)* |
| | Female | 12(5.1) | 91(38.9) | 93(39.7) | 38(16.2) | 234(100.0) | |
| grade | 1 | 12(7.8) | 53(37.0) | 64(41.6) | 21(13.6) | 154(100.0) | 10.515 (.105) |
| | 2 | 17(10.7) | 60(37.7) | 49(30.8) | 33(20.8) | 159(100.0) | |
| | 3 | 10(6.2) | 76(47.2) | 50(31.1) | 25(15.5) | 161(100.0) | |
| total | | 39(8.2) | 193(40.7) | 163(34.4) | 79(16.7) | 474(100.0) | |

* p<0.05

Table 4. School violence prevention training institutions

| | | school | Wee center | police office | Community youth counseling center | total | χ^2 |
|----------|------------|-----------|------------|---------------|-----------------------------------|------------|-------------------|
| school | Myeon area | 56(47.9) | 14(12.0) | 25(21.4) | 22(18.8) | 117(100.0) | 15.910 (.014)* |
| premises | Euo area | 105(58.7) | 28(15.6) | 25(14.0) | 21(11.7) | 179(100.0) | |
| | domg area | 105(59.0) | 12(6.7) | 41(23.0) | 20(11.2) | 178(100.0) | |
| gender | Male | 128(53.3) | 30(12.5) | 54(22.5) | 28(11.7) | 240(100.0) | 4.921 |
| | Female | 138(59.0) | 24(10.3) | 37(15.8) | 35(15.0) | 234(100.0) | (.178) |
| grade | 1 | 89(57.8) | 18(11.7) | 35(22.7) | 12(7.8) | 154(100.0) | 7.760 (.256) |
| | 2 | 90(56.6) | 17(10.7) | 25(15.7) | 27(17.0) | 159(100.0) | |
| | 3 | 87(54.0) | 19(11.8) | 31(19.3) | 24(14.9) | 161(100.0) | |
| | total | 266(56.1) | 54(11.4) | 91(19.2) | 63(13.3) | 474(100.0) | |

* p<0.05 ** p<0.01 *** p<0.001

Table 5. School Intervention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 | | Transfer to another school (offender) | Transfer to another school (victims) | School rules | Offender education | Education | χ^2 |
|----------|------------|---------------------------------------|--------------------------------------|--------------|--------------------|-----------|-------------------|
| school | Myeon area | 44(37.6) | 5(4.3) | 18(15.4) | 19(16.2) | 31(26.5) | 17.712 (.023)* |
| premises | Euo area | 47(26.3) | 5(2.8) | 55(30.7) | 16(8.9) | 56(31.3) | |
| | domg area | 60(33.7) | 3(1.7) | 42(23.6) | 29(16.3) | 44(24.7) | |
| gender | Male | 86(35.8) | 9(3.8) | 63(26.3) | 38(15.8) | 44(18.3) | 22.188 |
| | Female | 65(27.8) | 4(1.7) | 52(22.2) | 26(11.1) | 87(37.2) | (.000)*** |
| grade | 1 | 53(34.4) | 5(3.2) | 39(25.3) | 25(16.2) | 32(20.8) | 6.893 (.548) |
| | 2 | 50(31.4) | 3(1.9) | 38(23.9) | 21(13.2) | 47(29.6) | |
| | 3 | 48(29.8) | 5(3.1) | 38(23.6) | 18(11.2) | 52(32.3) | |
| | total | 151(31.9) | 13(2.7) | 115(24.3) | 64(13.5) | 131(27.6) | |

*p<0.05 ***p<0.00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개입은 Table 5와 같다. ‘가해자를 타학교로 전학시킨다’ 31.9%로 가장 높았고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모두 교육한다’ 27.6%, ‘학교교칙에 따른다’ 24.3% ‘가해자를 격리시켜 교육한다’ 13.5%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학교소재지($\chi^2=17.712$, $p<0.05$), 성별($\chi^2=22.188$,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소재지의 경우, ‘먼 지역’과 ‘동 지역’ 소재의 학생들은 가해자를 타학교 전학시킨다의 의견이 높은 반면 ‘읍 지역’의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모두 교육한다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

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가해자를 타학교로 전학시킨다의 의견이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모두 교육시킨다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중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여 조사하여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 정도는 동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읍 지역이나 면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조금 더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올바른 인식을 하였으며,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부모님과 걱정을 나누기 등 대화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학교폭력에 대해 더 올바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업참여도 및 만족도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서 그리고 학년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더욱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횟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기당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었으며, 교육은 특별활동시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행 주체는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중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는 감소하였으며,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흥미 유발 부족으로, 재미가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는 학생들의 문제의식 부족이 가장 높았다.

넷째, 중학생들이 원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월 1-2회 실시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예방교육의 주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부모님께 바라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개입방법으로 학생 모두를 내 아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선생님들께는 평소에 개인 상담을 자주 하고 학생들 개개인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집단 상담활동을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또래 집단에게 바라는 의견은 폭력현장 발견 시 선생님께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학교의 경우 가해자를 타 학교로 전학시키는 등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성별차이를 고려하고 학년에 따라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깨우쳐 주고 다양한 인성교육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교육내용과 다양한 수업매체와 수업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상담시간 확보 및 의사소통과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어느 한 개인이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으므로 가정에서도 학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부모들은 청소년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학교폭력예방 교육의 주체가 학교가 되기를 원하는 연구 결과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교육의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교사가 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 현장의 교사에게 좀 더 힘을 실어 주고 교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대상 지역이 전라남도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설문지에 의한 자기보고식 조사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상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은 성별, 학년별에 따라 차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지만 학교폭력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특히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Bang SY (200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chool violence behavior of youth through bibliotherapy. Master's thesis, Konggu National University
- Cho CR (2001) Enhance group cohesion programs bangwanjeok impact on improving attitudes and classroom cohesion and self-esteem for bullying. Master's thesis, Ewhang Women's University
- Cho YH (2008) Juvenile group violence in korea: reality and solutions. *J Comp Crim Law* 10(2), 677-699
- Dan Olweus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Blackwell
- Jang GS (2005)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development using traditional game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Jeong HN (2011) The influence of the motivation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participants on the program effect : with a focus o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school violence.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 Jeong JY (2012) Status and effectiveness of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the discussion of comprehensive measures to eradicate. *Open Issues Rel Rchool Violence Phrase*(2), 14-15
- Kang YM (2007)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alysis of school violenc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Kim HJ (2002) The development of school-violence prevention program and analysis of its effect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im NJ (2010) A study on effectiveness of a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 focusing on professional schools in Busan.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 Kim SG, Bae JH, Han JS, Kim HY (2013) An analytical study on uk, us, norway and germany's preventing & solving strategies of school bullying. *J School Soc Work* 25, 333-364
- Kim WR, Kim DH, IM SG (2010) Youth welfare. Seoul: DongMunsa
- Korea Youth Counseling (2008) Care promotion program development for the elementary school violence prevention. *Youth Counselling Studies*
- Lee HK (2000) School bullying prevention program research report. Prime Minister's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 Lee MN (2013) The improvement program through analysis of school violence and educ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 Master's thesis, Yongin University
- Lee SK (2008) A study on the school violence :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masan area.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 Ministry of Education (2013) School violence the answer lies in the field. <http://www.stopbullying.or.kr> [cited 2013 July 25]
- Oh J, Ah YA (2006) Middle school violence-avoid duplication affects the experience factor. *Soc Welf Dev Inst* 12(1), 79-100
- Oh SH (2007) Study on prevention and counter measures of school violence. Master's thesis, Far East University
- Park HJ, Jeoug MK, Park JH (2007)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development.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Park SG (2010) The junior high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targeted school violence is crazy attitude change impacts.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 Police (2011) Police white paper. Available from www.police.go.kr
- Polischewski H, Tveitereid K (2008) Policy overview of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among 8 members of the sbv network. The OECD network on school bullying violence
- Pyo GS (2010) *Child and youth welfare*. Seoul: Nanam
- Rigby K, Slee (1993)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 being. *J Soc Psy* 143(1), 33-42
- Seo MK (2007) The effec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in middle school. Master's thesis, Sungsan Hyog University
- Un YS (2013)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Yang AG (2009) The effects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on school violence attitudes, anger and agg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Docto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Youth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2011) 2011 National survey report on school violence in korea
- Youth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2013) 2013 National survey report on school violence in korea
- Youth White Paper (2013) Prevention and 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c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